“ 전력산업계 새로운 발전방향 ”

전기관련 단체장 신년 메시지

대한전기협회에서는 200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기관련 단체장들의 전력산업계에 바라는 소망을 들어보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단체장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무순으로 게재를 합니다. <편집자주>

기초전력연구원

원장 정 현 교

“ 전력산업의 기초연구 활성화 경주 ”

신년을 맞아 귀 단체의 역할 및 비전에 대하여...

우리는 21세기 과학기술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선진국 진입을 위해 과학기술경쟁력 확보에 전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전력산업의 기초연구 분야에 있어서 도세계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 및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학계의 연구 잠재력를 결집시키고 연구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전력산업에 관련된 기초연구 활성화에 더욱 더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교수들의 전력분야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확고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전국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시키고 전력산업의 기초연구분야 연구비를 확대하는 등 전력산업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력선행기술사업을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연구과제를 대형화함으로써 전력산업의 실용성 및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코자 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전국대학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이며, 전력분야에 대한 기초연구의 산실로서 특히 전력선행기술사업은 전력산업의 선진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에는 지방대학의 연구활성화와 우수연구인력의 그룹화를 통한 연구환경 조성과 우수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에 더욱 더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전력산업의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세계 각국은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서 고도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선진국 및 후발개도국과의 치열한 "기술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또한 치열한 "기술전쟁"에서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개도국의 추격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기술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력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변화하는 새로운 기술개발 환경에 역량을 집중하는 기술경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산업간에 영역이 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이에 대응해 전기계가 화합해서 전력산업을 발전시킬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급격한 기술변화의 환경 속에서 회원사간 기술정보와 신기술 동향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여 전기계가 서로 화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미래는 첨단기술과 융합기술이 복합화하는 추세이므로 전력산업도 IT와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시키는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력IT 사업은 기존 전력기술에 IT 등 신기술을 융합해 전력시스템을 고도화, 지능화하고 통신과 결합한 새로운 전력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그동안의 전력IT 사업을 점검하고 연구개발사업 등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하느라 분주한데, 협회에서도 회원사들의 중지를 모아 정부의 계획과 연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력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전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협회가 해야 할 일과 회원서비스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기협회는 전력분야의 교육, 연구, 산업에 관련된 국가의 모든 정책 수립에 관련 전력인들의 관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통일된 의견을 수립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회원사들에게 전기협회의 활동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회원사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협회의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전력산업의 발전과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협회에 소속된 많은 기업 및 전력산업계가 연구 및 기술개발에 더욱 더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사간의 유대강화 및 정보교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